

##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 - 공익과 전문성

### Urgent Theme: The Choice Between Public Good and Specialty of Architecture

조성룡 / 조성룡도시건축  
by Joh Sung-Yong

지난 10월 말 건축 3단체가 합쳐서 건축설계관련상호인증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세계건축가연맹(UIA)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국제상호인증 표준안을 만들었고 내년 북경에서 열릴 대회에서 이 안을 인준하려고 하면서, 미리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원하였고 이 날의 모임이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인 셈이다. 이 표준안은 이어 WTO에 제출되고 각국이 건축설계업무에 관련한 인증협의를 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준안은 크게 교육과 인증제도, 실무경력/교육/인턴십(Internship)제도, 전문(자격)시험 제도, 자격과 면허의 인정과 사무소 등록 제도, 윤리 강령, 평생(연수)교육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연말 이후의 경제 전쟁 때문에 추축해 지긴 하였지만 벌써 수 년 전부터 건축 설계 업무는 이미 외국 건축시장에 무방비상태로 개방되어 있었고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건축가나 설계회사와의 계약도 증가하고 있었다. 세계건축가연맹이 내놓은 여섯 가지 제도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과 대응을 살펴보자.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가 교육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고 국제 개방에서 침여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세계건축가연맹은 제시된 표준안에서 전일제 교육을 최소 5년간 이수할 것을 주장한다. 비록 UIA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경우 4년간(그러나 1학년 교양과목, 4학년 기사시험준비를 빼면 실제 전공기간은 겨우 2년이 조금 넘을 뿐이다)의 설계교육으로 건축가를 양성한다는 것이 무리임을 다 알면서도 건축이 디자인만으로 되지않는다 하여 아직까지 4년제 공대시스템을 고집하는 대학쪽의 자세는 정말 답답하다.

굳이 공학부 제도를 폐지하지는 것도 아니고 건축가를 기르기 위한 전문대학을 몇 대학만이라도 개설하면 될 터인데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한 대학교수는 한탄한다. 어차피 대학에서 건축가 교육을 시킬만한 충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음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더구나 실무건축가가 대학에 접근하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건축사법과 사협회 윤리 강령의 겸직금지 조항)되어 결국 교육을 받는 학생만 제대로 된 설계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학을 나오고 또 이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뿐이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대학에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였지만 이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대학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제 대학의 차이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내용에서 드러나야 한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가 무엇보다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건축가를 기를 것인가, 전문 엔지니어인가, 또는 관리인가. 그렇게 보면 공대는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건축가 교육과 동시에 전문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공대를 나와 현장의 심장정도의 역할이라면 문제

는 심각하다. 건설현장이 변화하는 속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데서 온 결과이다. 구조나 설비 엔지니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지금의 대학에서처럼 설계에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역학이나 설비공학 공부는 결국 구조, 설비 그 자체만을 위한 공부로 끝날 뿐 아니라 종합 능력을 기르지 못하므로 결국 기술적 낙후성을 야기 시킨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축사와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이다. UIA 표준안에서 명시한 정의를 보자. “건축사는 전문적 자격을 갖고 자기가 실무를 행하는 영역(Jurisdiction)에서 면허를 등록함으로써 건축실무에서 법이나 관습에 의하여 보장을 받은 사람으로 공정성과 지속적(Sustainable)인 개발, 복지, 공간, 형태,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적 정주(Society's Habitat)에 대하여 문화적 표현을 주장하여야 한다” 건축가의 직능은 오늘날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건축가의 업무는 늘어나는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테크놀러지의 진보로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사회와 생태적인 당위성이 역시 더욱 더 건축가의 영역을 조여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설계와 공사과정에서 여러 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을 나누어 담당하고 협동하여야 할 필요가 생겨난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설계 전문가로서 건축가의 역할은 이제 전자 테크놀러지와 전문 기술 시스템이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지금까지의 모습대로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직업과 구별하여 법률, 의학, 신학, 교육, 건축 등을 다루는 직업을 일컬어 ‘Profession’이라 하였다. 흔히 건축가의 직능을 변호사와 의사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건축가의 위상은 어떠한가? 과연 의사나 변호사(최근 이 분야도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하나)처럼 사회적 인정과 신뢰를 받으며 직능상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현대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정치, 경제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그 상황이 바뀌므로 더욱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과학과 기술의 괄목할 만한 진보는 그 이전 몇 천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뛰어 넘는 것이었다. 특히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옮겨지면서 유전자 공학, 전자 테크놀러지가 바뀌어 놓은 사회와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는 이제 개인의 정보 장치가 된 지 오래고, 팩시밀리와 이동통신은 인간과 사회의 거리, 인간과 인간의 거리 뿐 아니라 시간·공간의 개념을 뒤 흔드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정보라는 허구가 지배하는 도시의 모습은 편의점과 소비 사회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광고에서 24시간 움직이는 새로운 풍경이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국토가 개발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새로운 건축주로 등장하게 되고, 건축가는 변화하는 거센 물결에서 속수무책이다. 개발의 규모가 커지고 빨라짐에 따라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수행해야 할 업무도 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확장되어 있다. 개발업자들은 분양 책임을 전제로 하거나, 재개발의 경우처럼 자본까지 동원하며 설계 시장이 장삿속으로 변해 가는 것도 큰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에 일어난 대형 붕괴 사고 이후로는 업무상의 실수나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 건설 환경에서 각각의 영역은 점점 더 전문화되는 추세이고 자연히 전문 영역이 모여 협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건축 생산 시스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설계 조직도 따라서 대형화되는 움직임이 강하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규모 조직의 건축가들은 우선 전문 종합 집단으로서의 대규모 조직과 경쟁하여야 하고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업무도 그 시간에 더 많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건축가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즉 의사와 변호사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큰 문제이다.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집착하지 못한 어려운 시간과 상황을 맞았다. 얼마동안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헛되이 보낼 겨를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지나간 시간의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우리에게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세계시장에서도 적용되는 합리적인 것이라야 한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패배주의와 불감증이 남아있는 한 좋은 건축(혹은 건축가 사회)환경을 만들기 힘들다. 지나간 몇 십년처럼 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건축주의 시너 노릇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개인적인 서비스 차원에만 머무르게 될 때 우리에게 돌아 올 것은 뻔한 일이다. 건축가는 건축주뿐 아니라 이 사회와 도시 문화에 책임을 지는 전문가 집단이다. 사회적 공익이 무엇보다 우선될 때 우리의 직능은 살아 남는다. 시대를 끌고 가는 문화·사회적 리더로서, 사회적 윤리를 지키며 자신의 의지를 실천해 나가는 양심있는 전문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기술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문가로서, 젊은 건축인들을 훈련하는 교육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프로페셔널 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올바르게 균형 잡힌 사회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